

경전선 전철화·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반영 총력

광주·전남 국가철도망 구축·광역교통기본 계획 포함 유력 사업은?

미래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 계획 등에 포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달빛내륙철도 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청신호' = 우선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광주시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 요청했다. 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정부가 올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영호남 상생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중 하나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대구 간 191.6km 구간을 최고시속 250km로 달리는 고속철도로 연결해 '영호남 1시간 생활권'을 만드는 철도인프라 구축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광주와 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 대구 구간으로, 영호남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구간에 대한 전철화 사업은 2·3차 계획에 이미 반영됐지만, 그동안 예타 조사 등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진척이 없었다.

광주와 전남도는 광주~순천 간 전철화 사업이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송정과 순천을 잇는 107.6km 구간으로 올해 4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다. 올 국비에 이 구간의 철도기본계획 수립비가 국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전국 4대 간선 철도망(중앙·호남·경부·경전선) 중 유일한 단선·

광주~나주·장성·함평

광역도로 개설 3건도

광주시·전남도 적극 협력

비전철 구간으로 전철화될 경우 경전선 구간(광주~부산) 소요시간을 현재보다 3시간 이상 단축된다.

◇시·도, 광역교통망 구축 대응에 전력 = 광주시와 전남도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은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주 대촌~나주 금천 ▲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 광역도로 사업 등이 있다.

광주와 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광주 효천역~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을 잇는 19km 구간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0년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낮아 국가계획 반영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혁신도시 인구 증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 광주·전남지역 공약으로 채택돼,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도로 사업 가운데 ▲광주 하남~장성 삼계(10km) ▲광주 대촌~나주 금천(8.35km) 구간은 지난 2016년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7년~2020년)에 반영됐던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타조사 결과 번번히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2개 사업 모두 산업단지 조성과 최근 정부의 예타 조사제도 개편(경제성 비중 감소) 등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형가리 유람선 사고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하남~장성 삼계 구간은 빛그린산단과 진곡산단 등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광주 대촌~나주 금천 구간은 예타조사 결과 번번히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또 신규 사업으로 광주 삼도~함평 나산 간(11km) 광역도로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문 대통령 “형가리 유람선 사고 가용자원 총동원 구조”

오전 8시 첫 보고 긴급지시

중대부 구성 사태 수습 전력

모든 일정 취소하고 긴급 대응

형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30일 총력대응 체제로 긴박하게 대처하며 수습에 온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첫 긴급지시를 통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하라”고 당부했고, 예정된 오찬을 취소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다. 부처들 역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부를 구성하고 현장에 대응팀을 보내는 등 급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오전 8시 첫 긴급지시...오찬 취소하고 관계장관회의 소집=외교부에 따르면 유람선 침몰 사고는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 5분께 벌어졌다. 국내 언론이 외

신을 인양해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오전 6시 48분이며, 그로부터 1시간 10여분이 지난 오전 8시 문 대통령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하라”라는 첫 긴급지시를 했다. 문 대통령의 긴급지시 내용은 30여분 후인 오전 8시 30분께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첫 지시 후에도 관계장관들의 상황점검 회의 결과를 수시로 보고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기자들을 만나 “정의를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방청장이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며 “회의 내용은 문 대통령께 수시로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성과 창출 공무원들과의 오찬’ 행사를 취소했다. 애초에는 오찬을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문 대통령은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를 거쳐 결국 오찬을 취소, 사고 수습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취소한 대신,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50분간 청와대 여인원 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정 안보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윤종민 행안부 차관, 서훈 국정원장, 조현배 해경청장, 이재정 소방청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외교장관 형가리행·법정부 총력대응 체제...문 대통령 “국정원도 돌길”=문 대통령의 지휘 속에 관계부처들도 역시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문 대통령이 첫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외교부 소속 인원 6명과 소방청 소속 인원 13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급파했다. 강 장관은 현장 지휘를 위해 이날 형가리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세월호 구조 유경현자 등으로 구성된 해군 해난구조대 1개팀(7명)과 해경 구조팀(6명), 국가위기관리센터 2명 등을 후속대로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공장 출연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그린카진흥원 변경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기관을 변경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합작법인 출연기관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그린카진흥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광주시는 출연금 484억원을 그린카진흥원에 우회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와의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에 사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이 공기업으로 분류

되는 것을 막고자 직접 투자 대신 자본금을 우회 투자한다.

합작법인 사업비 5754억원 가운데 광주시가 21%(484억원), 현대차가 19%(437억원)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무적 투자자인 국책은행 산업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한다. 광주시는 당초 현대차가 자본금을 출연해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자본금을 투자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술창업기업 육성이 주력인 창

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맞지 않고 과학기술기반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토 끝에 출연기관을 변경했다.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그린카진흥원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린카진흥원은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 및 기업지원 기관으로 광주시가 800여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그린카진흥원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시는 다음 달 3~17일 시의회 정례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되는 대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나선다. /김형호 기자 khh@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871280 point

462810973 point

691749802 point

877814000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